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Childhood neighborhoods as third places : Developing durable skills and preferences that enhance wellbeing

|| Carolyn May Hooper, Vivienne Chisholm Ivory, Geoff Fougere Health and Place, 34(2015), 34-45.

저자들이 밝히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이 인위적인 구축환경(built environment)과 가구 특성(household characteristics)에 대해 현재 이루어진 연구를 보완하는 근린(neighborhoods)과 건강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요한 새 영역(area)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인의 여성의 인생 이야기(life-stories)를 통해 서사적 분석 기법(narr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사회적 안녕(wellbeing)에 미치는 근린 사회 환경(neighborhood social environment)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들이 밝히는 주요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성인들이 국지적 건강 수준을 자본화(투자 : capitalise)하기 위해서 그들이 특정 사회적 기술과 선호를 구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social opportunities)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밝힌 것은 이러한 기술과 선호를 성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선호(preferenece)와 지속적인 생활화(실천)을 견지하며, 우호적인 관계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통해 주관적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며, 제3의 장소(a third place : 집이나 학교, 사무실이 아니라 심신의 안정을 느끼게 하는 곳)와 같은 아동기의 근린환경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구득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밝히는 주요 결론은 아동기의 우호적 경험은 우호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한, 영구적으로 자명한 표본을 확립할 수 있는 선행연구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표본이 없이는 지역 사회적 관계와 관련 있는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benefits)은 성인기에는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The dynamics of house price responsiveness and locational sorting : Evidence from air quality changes

▮ Corey Lang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52(2015), pp.71-82.

저자들이 밝히는 지금까지 주택 가격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의 단점은 비시장재(non-market goods)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to reveal valuation) 광범위하게 주택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주택 가격 조정(house price adjustment) 과정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구득할 수 있는 미국 주택조사자료(American Housing Survey), 빈번하게 변화하는 가격 정보, 거주자 변동율, 거주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 경로와 1990년 청정 대기 법 개정안(1990 Clean Air Act Amendments) 이후의 여러 다양한 규제 압력에 따른 대기의 질 변화에 대응하는 선호 체계에 기반한 분류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정교한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대기의 질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 가격의 변화와 함께, 거주 가구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의 질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선호를 조정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대기의 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차분(difference)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찰된 자료에 대하여 다른 시차(different lags)를 적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는데, 본 연구의 데이터인 미국 주택조사자료가 격년에 한번

표본자료를 구축하는데, 2년, 4년, 6년, 8년, 10년의 시간적 격차에 따른 다섯 가지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축된 다섯개의 데이터셋 중 가령 첫번째 차분의 모형은 주택 가격과 대기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불변적인 지역 특성(invariant characteristics of areas)을 흡수하는 단위 특정 고정효과(unit specific fixed effect)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불변적 특성은 기후, 지형학적 특성(topographical features), 개방공간 접근성, 교통인프라 등이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세입 가격이 어메니티 수준을 따라가는 시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가 거주자의 경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가파른 세입자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유형 분류의 증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 선택과 가격의 동적 변화 간 강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2015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 Having a Retirement Savings Plan a Key Factor in Americans' Retirement Confidence

▮ Ruth Helman, Greenwald&Associates; and Craig Copeland, Ph.D., and Jack VanDerhei, Ph.D.,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 April 2015, NO.413, pp.1-40

Retirement Confidence Survey(RCS)는 미국

에서 가장 긴 연간 은퇴 설문조사이며, 매년 주기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RCS는 25세 이상의 개인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한다. 샘플 질문으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제도를 포함한 자신의 퇴직 소득 전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2015년 RCS는 25번째 설문조사결과이며, 2015년 4월에 발간되었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 계획은 알맞은 은퇴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전망이 핵심 요소라고 논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RCS에서 은퇴 신뢰도가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은퇴 계획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낮은 비율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 증가하고 2015년에도 증가하고 있다. 22%는 현재 매우 확신하고 있다. 반면에 36%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24% 전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2013년 이후 증가되고 있는 확신감은 은퇴계획 참여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은퇴계획 있는 사람들은 매우 확신을 가지는 비율이 2013년 14%에서 2015년 28%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은퇴 계획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인 변화를 확인 할 수 없다.

네 번째, 재정적으로 안전한 은퇴를 가지고 있는 퇴직자의 확신비율은 매우 확신하는 비율이 2013년 18%에서 2015년 37%로 증가했으며 전혀 확신이 없는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4년 17%로 증가했지만 2015년 14%로 다시 하락하였다.

다섯째, 은퇴의 다양한 측면의 경제성에 근로자의 확신감도 회복했다. 특히 기본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확신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13년 25%, 2014년 29%에서 2015년 37%로 증가하였다. 의료비용 및 장기 요양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확신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과 일상 경비의 비용은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은 은퇴를 위해 현재 저축하는 것보다 주당 25달러 더 저축할 수 있다며 마무리 하고 있다.

Health Savings Accounts and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s : Assets, Account Balances, and Rollovers, 2006-2014

■ Paul Fronstin, Ph.D.,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Anne Elmlinger, Greenwald & Associates,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 January 2015, NO.409, pp.1-20

이 보고서는 미국의 세금 공제혜택이 있는 건강 보험 결합상품인 Health Savings Accounts(HSAs)와 고용주가 직원의 계정에 기여하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완하고 직원이 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의료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s(HRAs)의 자산, 계좌잔액, 롤 오버를 조사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HSA와 HRA의 자산, 계좌잔액, 롤 오버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2014년의 HSA와 HRA의 자산은 1,060만 계좌에 분산되어 약 221억 달러였다. 2008년에는 420만 계좌에 57억 달러였다. 평균 계좌 잔액은 2008년 1,356달러에서 2014년에 2,077달러였다.

3~4년 사이 자신의 계좌를 유지하는 비율은 2008년 19%에서 27%로 올랐으며 5년 이상 자신의 계좌를 유지하는 비율은 2008년 4%에서 2014년 13%로 증가하였다.

고용주의 기여가 있는 계좌의 평균잔액은 고용주의 기여가 없는 계좌의 평균잔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주 기여가 있는 계좌는 평균잔액은 2,403달러인 반면에 고용주 기여가 없는 계좌는 2,056달러로 나타났다.

5년 이상 HRA와 HSA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계좌는 평균 3,092달러이다. 1년 미만인 개인의 계좌는 1,500달러 미만이었다.

평균 롤오버(rollover)의 금액은 2013년 1,165달러에서 2014년 1,244달러로 증가하였다. 2014년 89억 달러가 롤오버 금액이었으며 2013년 94억 달러보다 낮아졌다. 개인의 11%는 2014년 롤오버 없이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였다.

2014년 계좌유지기간이 1~2년의 평균 롤오버 금액은 982달러, 3~4년의 평균 롤오버 금액은 1,421달러, 5년 이상 평균 롤오버 금액은 1,428달러로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롤오버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기여가 있는 계좌의 롤오버는 고용주의 기여가 없는 계좌의 롤오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주의 기여가 없는 계좌의 평균 롤오버는 1,069달러인 반면에 고용주의 기여가 있는 계좌의 롤오버는 1,280달러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01년 처음 고용주가 HRA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2004년에 HSA와 함께 건강계획을 제공할 수 있었다. 2014년 10인 이상 500미만의 고용주의 27%와 500인 이상의 고용주의 48%는 HRA 혹은 HSA 중 하나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이 계획은 2014년에 개인보험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26만 명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Big Data and Ambulatory Care

■ Jane Hyatt Thorpe, Elizabeth Alexandra Gray. 2015. *J Ambul Care Manage.* 38(1), pp.29-38.

본 논문에서 빅데이터는 의료 서비스 제공, 주민 건강상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룸으로써 보건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비평가들은 빅데이터의 변형 가능성이 의료정보교환을 억제하는 사생활 보호 요구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허용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이 글은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요를 보여주고,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자 한다. 그리고 외래진료

(ambulatory care) 제공자가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선 빅데이터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에서 '빅(big)'은 세 가지 V(three Vs)로 특징화되어 있다. 이는 데이터의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건 분야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세 가지 V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진실성(Veracity), 변동성(Variability), 가치(Value) 세 가지가 해당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 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장벽이 존재해 왔지만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Kayyali et al. 2013)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류 최소화(reduce error), 고위험 환자 탐지(identify high-risk patients), 증거 베이스 의료(evidence-based medicine), 프로세스 개선(improve processes) 등에서 빅데이터들이 보건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솔루션이 임상 정보로부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응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 또한 다른 예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 방침(treatment protocol)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System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혈을 검토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함으

로써 31% 만큼의 수혈과 매달 \$200,000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으로 빅데이터는 보건 관련 지식 및 그 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건강 정보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지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둘러싼 오해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은 효과적으로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외래 진료 제공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Non-Standard “Contingent” 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 A Panel Data Analysis

■ Hielke Buddelmeyer, Duncan McVicar,
Mark Wooden. 2015.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54(2).
pp.256-275.

최근 10년 안에 비정규직의 고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비정규직의 직업 만족도 분석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글을 시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의 빈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가구 패널 조사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비정규직의 직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지금 소개 글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은 기초통계량을 기반으로 하는 결과와 더불어 순서형 로짓 회귀 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결과를 추정하고 있다.

순서형 로짓 회귀 모형에서 반응변수는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직업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잠재변수이며 순서형(ordinal)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를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고용 유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그 외 관찰된 변수들, 관측되지 않은 시불변(time-invariant)에서 개인의 효과, 시간 효과(time effect), 랜덤오차(random error)로 개인의 직업 만족도를 설명하고 있다.

추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각 년도 별, 성별과 고용 유형에 따른 직업 만족도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년도 별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들은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근로자(casual worker)의 평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임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작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고용 유형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순서형 로짓 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의 성별과 고용 유형에 따른 직업 만족도의 평균과 순서형 로짓 회귀 모형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의 유무에 따른 적용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고자 한다.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명백히 낮은 직업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정확히 명시된 근로자는 산술 평균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정규직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정도로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

이지만 순서형 로짓 회귀 모형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낮은 직업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고정효과를 고려한 경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위의 분석 결과는 여러 요인들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본 논문은 더 나아가 직업의 유형과 근로 기간의 요인을 교호작용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교호작용으로 고려할 수 있고,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한 교호작용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업 유형이 임시 근로자인 남성은 낮은 직업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인 순서형 로짓 회귀 모형에 대한 결과 해석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즉, 추정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들은 고용 유형별로 직업 만족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분석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 발전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covariate)를 고려해야 하고, 분석을 위한 강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정(regulation)에 명백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포럼

매월 발행되는 『보건복지포럼』은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정책 전문지**입니다.

2015년 5월호 (통권 제223호)

등록번호 세종 라00008
등록일 1996년 10월 1일
발행일 2015년 5월 1일

편집인/발행인 최병호

편집위원장 정경희

편집위원 강유구 김동진 류정희 박실비아
신윤정 신화연 오미애 임완섭
황남희 황도경

편집간사 강소선

인쇄 대명기획(TEL: (02)2263-1292~3)

가격 4,000원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대표전화 (044)287-8000

FAX (044)287-8056

E-mail bookadm@kihasa.re.kr

정기구독안내

■ 신청방법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서
회원등록을 하십시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간행물 구독안내」

([http://www.kihasa.re.kr/html/jsp/
publication/subscribe_guide/subscribe.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subscribe_guide/subscribe.jsp))

정기구독 / 배포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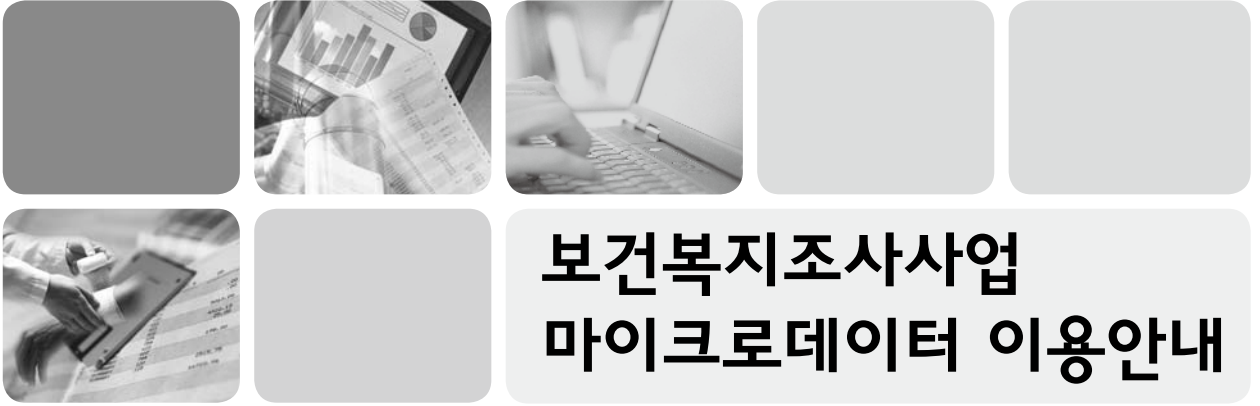
TEL: 044)287-8157 / FAX: 044)287-8056

■ 정기구독회원 특전

1. 연간구독료는 35,000원입니다. 날권 구입에 비해
연간 약 50%가 할인된 금액입니다.
2. 정기구독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를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보건복지포럼』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조사사업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구분야**의 기초통계 생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 목록

번호	데이터명	제공연도
1	노인실태조사	2011, 2008, 2004, 1998, 1994
2	환자조사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5, 2002, 1999, 1996
3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2009, 2006, 2003, 2000, 1997, 1994, 1991
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2009, 2005
6	노인보호실태조사	2009
7	중년층생활실태조사	2010
8	장애인실태조사	2011, 2008, 2005, 2000
9	영아모성사망조사	2007~2008
10	차상위계층실태조사	2007, 2004
11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2004, 2003, 2002
12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2001
13	우리나라 치매노인실태조사	1997
14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15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 수요 조사	2012

조사자료 담당자 연락처



TEL: 044) 287-8197 FAX: 044) 287-8069

E-mail: micro@kihasa.re.kr

Homepage: <http://hawelsis.kihasa.re.kr>